

# 상가 진입·등산로 막은 호텔무등파크

### 광주 지산유원지 식당 밀집지역 철제펜스 설치 호텔측 "부지 소유자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 한 것" 상인회 "차량 통행 막아 영업손실 우려" 민원 제기

광주 지산유원지 식당 밀집지역인 '옛 칼국수 식당(70-3번지)' 옆 도로(현황도로)에 철제 펜스가 설치돼 주변 상인들과 통행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도로는 무등산 향로봉(해발 366m) 등산로 주요 입구 중 한 곳으로 하루에도 수 백명의 등산객이 오가고 있으며 이 일대 음식점을 찾는 고객들의 주요 진입·출입로다.

그러나 펜스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음식점을 찾는 고객들과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200m 가량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산유원지 상인회는 "비록 사유 지이지만 수십 년 간 도로로 이용해 온 부지를 막아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지 소유자인 무등파크호텔 측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땅 소유주와 특별한 마찰 없이 도로를 이용해온 부지에 갑자기 펜스가 설치 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 이유는 이렇다.

호텔무등파크는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70-3번지(옛 칼국수 식당) 옆 자신(법인) 소유 부지인 70-2번지(252㎡) 중 일부 부지에 높이 1.3m·길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이는 호텔무등파크가 법인 소유의 땅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부지는 그동안 옛 칼국수 식당 주인이 70-2번지 소유자인 무등파크로부터 임대해 고객 주차장으로 이용했었으며 이 일대 식당(9곳)·점(1곳) 주인·스님들은 주요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현재 호텔무등파크 측은 지난해 70-2번지(칼국수 식당) 지주(地主)가 바뀌자, 최근 상인회장을 통해 새 지주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땅 주인이 응답을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

호텔무등파크는 자신의 소유인 70-2번지 땅 중 일부를 무단사용했던 옛 칼국수 식당 부지(70-3번지) 주인에게 앞으로는 이 땅 사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다.

상인회는 호텔무등파크가 펜스를



광주시 동구 지산동 식당 밀집지역 입구에 땅 소유자인 호텔무등파크가 높이 1.3m·길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설치해 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영업 손실이 우려되자 동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도로로 이용되는 땅에 대해선 사유지더라도 펜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펜스를 철거해달라는 내용이다.

상인회는 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땐 일반교통방해혐의로 동부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형법상(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구는 이날 호텔무등파크 측에 펜스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낸 뒤 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땐 같은 혐

의로 동부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호텔무등파크 관계자는 "전부터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부지(70-3번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다"며 "지주가 직접 찾아와서 대화를 하겠다면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5분 해질 18시 33분 달출 10시 34분 달몰 1시 1분

**아외활동 좋아요**  
아침저녁 기온차 크니 감기 조심하세요.

광주	맑음	-4/8℃
목포	맑음	-3/6℃
여수	맑음	-1/8℃
나주	맑음	-6/8℃
완도	맑음	-2/8℃
구례	맑음	-4/9℃
강진	맑음	-4/8℃
해남	맑음	-3/8℃
장흥	맑음	-4/9℃
순천	맑음	-2/10℃
영광	맑음	-5/6℃
진도	맑음	-2/7℃
전주	맑음	-5/7℃
군산	맑음	-5/7℃
남원	맑음	-7/7℃
혁신도	맑음	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0.5~1.5m 관심 매우높음 매우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1.0~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목포 06:19 11:18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여수 00:47 06:38  
북~북동 1.0~1.5m 12:43 18:57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날씨						
최저/최고	-2/9	0/11	-1/12	1/14	4/11	2/9

## 애꿎은 농민 잠은 수사당국

### 경찰 신분 확인 제대로 안해 전과자 오인 검거 검찰 뒤늦게 석방...명의 도용 50대 선원 구속

50대 농민이 수사 당국의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 때문에 전과자가 된 뒤 수배, 검거됐다 뒤늦게 풀려났다. 1차 조사 기관인 경찰 뿐 아니라 검찰·법원까지 속이 넘어가면서 애꿎은 농민만 '고초'를 겪은 셈이다. 동명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다른 사람으로 둔갑,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든 50대 선원이 구속됐다.

발단은 이렇다. 50대 농민 A(57)씨는 최근 경찰에 벌금 7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불찰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넘겨졌다. 지난 2012년 7월 30일 발생한 상해 사건 전력으로 선 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검거한 경찰 설명이었다.

전과 한 번 없는 평범한 농민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데도, 전과자가 됐다는 사실에 검찰에 강력하게 항변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찾아 뒤지다 당시 지문과 A씨 지문이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 그제서야 검찰은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검찰은 곧바로 A씨를 석방하고 A씨 신분을 도용한 선원 B(55)씨를 검거, 5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당시 상해사건 피의자로 목포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씨의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등을 출출 외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신분 도용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서류가 넘어간 검찰과 법원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해경은 당시 바다에서 벌어진 상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B씨가 A씨의 인적사항을 천연덕스럽게 위유는데다, 선원 출입장 명부에도 A씨 이름으로 등록된 점에 감쪽같이 속아넘어갔다.

검찰·법원도 서류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뒤늦게 법원에 약식명령 결정문을 고쳐달라고 청구해 전과기록도 바로 잡았다. /김지기자 dok2000@

## 광주시 '현미경 감사' 비위 간부 적발

### 딸 채용 관여·땅 투기 한 2명 감봉·강등 조치

광주시가 '청렴 광주' 실현을 목표로 강도높은 자체 감사를 통해 간부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민선시대 들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내부비리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이번 조치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 한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A소장(여·44)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 조치하고, 자신의 업무 지식을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지적(地籍)직 공무원 B씨(56)를 6급으로

강등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지난해부터 시정 직권인 사이에서 때로는 속칭 '복도통신' 등 시정 안팎의 다양한 미확인 정보를 수집한 뒤 내부 감사를 진행해 간부 공무원 2명의 비리 행위를 적발했다.

A소장은 자신이 직접 추천한 면접위원들(4명)에게 자신의 딸이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딸이 실제로 합격한 뒤 잡음이 일자 다음 날 곧바로 합격을 취소했다.

A소장은 또 자신을 시정 사회복지직의 '대모'라고 지칭하면서 사회 복지공무원 모인 회비 일부를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시 감사결과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은 다만 시정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A소장의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계과추적 등 수사권이 없는 한계 때문에 사실을 확인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10여명의 식사모임을 주선해 특정인의 지지발언을 하고 초콜렛을 제공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광주시는 또 자신의 업무 특성을 활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지적직 5급(사무관) 공무원 B씨를 6급으로 강등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9월 공매로

나온 모 학교 앞 땅을 1800여만원에 매입한 뒤 복구청에 용도변경을 추진해 1년에 만에 땅값을 4.3배 오르게 한 것으로 광주시 감사결과 확인됐다.

광주시는 용도변경 추진과정에 B씨와 유착의혹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의 땅값 사용료를 놓고 학교 측과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제보를 접한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감사에 착수하자 땅 소유자를 자신의 아내로 변경시켰다.

정민권 광주시 안전행정국장은 "조작내 자정 능력 강화를 위해 A소장과 B사무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 감봉과 강등 조치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강력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영화 무료관람 행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광주여성영화제는 6일 '세계 여성의 날'(8일)을 기념, 광주시 동구 광주영사문화관에서 '여인들의 영화관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영사문화관에서 '할머니와 라제리'와 '밀양전' 등 영화·다큐멘터리 등 두 편이 무료 상영됐다.

'할머니와 라제리'는 남편과 사별한 80대 할머니가 주위의 반대를 이겨내고 라제리 가게를 열어 성공한 사례를 따스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린 영화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날 행사가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유생존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존**  
유·스퀘어점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워터, 주스)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거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오노들, 테코타일(석사라임), 테코타일(점사라임)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 InstaFloor